

主 要 事 業

○ 奎章閣圖書 整理事業

約 14 萬卷에 達하는 奎章閣圖書는 最近까지 未整理 狀態로 放置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保管은 勿論 利用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支障을 招來하여 왔던 것이다.

本圖書館으로서는 이와같은 貴重하고 방대한 文獻을 그대로 放置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의 分類, 目錄의 作成 및 解題 等 그 完全한 整理를 計劃하였으나 豫算 不足으로 實現치 못하고 다만 目錄作成 事業만을 1963年 7月 1日부터 着手하여 1964年 8月 末日까지 1年間に 걸쳐서 韓國本 73,421冊의 整理를 完了하고 著者名目錄, 書名目錄 等の 閱覽目錄과 必要한 事務用目錄을 完成하였고, 이어서 中國本 65,568冊(1965년부터 67년까지 3個年計劃)에 대한 第1次年度 目標量 22,000冊의 整理現況은 10月末 現在 19,231冊(87.4%)의 實績을 보이고 있다.

또한 整理가 끝난 韓國本에 대하여는 資料의 廣範圍한 利用을 爲하여 目錄을 油印物로서 刊行하였는데 現在 集部 1冊과 史部 3冊 經·子部·補遺 1冊이 이미 出版되었으며 이에따른 書名總索引도 12月中旬까지는 刊行할 豫定이며 今年度부터 시작한 中國本에 대하여도 目錄作成이 끝나는대로 韓國本과 같이 油印物로서 冊子目錄을 刊行할 豫定이다.

(司書課 提供)

○ 마이크로 필름 複寫事業

光學의 發達이 우리 生活에 가져온 便益은 적지 않으며 그 中에서도 마이크로 필름은 刮目할만 하다고 하겠다.

마이크로 필름이 지닌 特性으로서의 첫째 原資料를 無限히 작게 縮少할 수 있다는 點, 둘째 燃燒性이 적어서 現像處理나 保管條件을 適切히 取한다면 그 壽命은 거의 永久的이고 完全하다는 點, 셋째 原資料의 大小, 形態를

調節하여 統一된 規格이나 形態로 變化시킬 수 있다는 點等 이 밖에도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바 原資料를 縮少함으로써 그 保管場所의 空間을 節約할 수 있고 또 變質性이 적어서 原資料의 內容의 完全保存을 期할 수 있기 때문에 第2次大戰中에는 마이크로 필름이 戰略用 내지 軍事情報用으로 많이 利用되었다고 한다.

第2次大戰後 先進各國에서는 이 마이크로 필름의 特性을 利用하여 各官公署, 銀行, 會社, 圖書館 等에서도 文書, 記錄類 等を 迅速, 正確히 複寫함으로써 事務能率을 增進시키고 利用의 簡便과 安全한 保存方便으로도 삼게 되어 이제 活潑히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몇年前부터 이 마이크로 複寫施設이 導入되기 始作하여 現在 總務處, 延世大學校, 高麗大學校,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KORSTIC), 第一銀行, 國立中央工業研究所 그리고 本館 等に 이를 施設하고 運用中에 있다.

本館에서는 1962年以來 圖書의 마이크로 複寫業務를 始作하여 奎章閣圖書等 많은 貴重한圖書를 마이크로 複寫하여 國內의 學者에게 供給함은 勿論 널리 外國에까지도 이를 輸出하여 우리의 文化를 世界 여러나라에 紹介함과 同時에 外國의 文獻과의 交換用으로도 使用하여 왔다.

그러나 1964年까지에는 施設도 갖추지 못하였고 또 初創期이었기 때문에 家內手工業程度에 不過하여 그 質이나 量에 있어서 滿足할만한 成果를 期待할 수 없었다.

그러던 次에 1964年 6月 美國 Harvard-Yenching Institute (哈佛燕京學社)의 好意로 本館에 마이크로 필름 複寫施設을 導入하게 되어 同年 10月부터 이를 稼動하기 始作하여 이제 겨우 1年이 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成果는 적지 않았다고 본다.

今年度 實績을 보면 10月末까지에 總 99,595 프렘(構圖: 原資料의 1面 또는 2面)을 複寫하여 서울大學校의 教授 및 學生에게 奉仕하였음은 勿論 國內외의 需要者의 申請에 의하여 널리 奉仕하고 있으며 特히 歐美諸國, 中國, 日本國 그리고 東南亞諸國에도 널리 이를 輸出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마이크로 필름 複寫事業을 더욱 더욱 發展시켜 첫째 貴重한 原資料의 保存에 萬全을 期하고, 둘째 다루기 簡便하여 閱覽의 便宜를 提供하고, 셋째 우리의 文化를 國內外로 널리 紹介함으로써 國威를 宣揚하고 그리고 넷째 外貨獲得의 方便으로도 利用할 수 있는 等 實로 有益, 有爲한 事業이라고 할 수 있다.

本校 5 個年計劃中에는 이 마이크로 複寫施設의 擴充이 들어 있는 바 이計劃이 早速히 具現되어 國家와 民族文化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事業으로서 더욱 더 發展하기를 바란다.

(閱覽課 提供)

○ 舊刊東洋書 書架目錄 整備事業

本館에서 舊刊이라고 하는 圖書는 1945 年(光復) 以前 舊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 當時에 蒐集 整理된 圖書와 1945 年 以後 1950 年(韓國動亂時) 까지 蒐集되어 舊帝大附屬圖書館의 分類, 編目規則에 의하여 整理된 圖書(現在에는 東·西洋書 모두 「듀이」十進分類法에 의하여 分類하고 A.L.A=美國圖書館協會 目錄規則과 L.C.=美國議院圖書館 記述目錄規則에 의하여 編目함)로서 約 40 餘萬冊에 達한다(奎章閣圖書 除外).

그러나 이 圖書에 關한 記錄인 諸帳簿 및 目錄等이 第 2 次大戰中の 混亂 大戰後의 混亂, 6·25 動亂中の 混亂等 連續된 混亂으로 因하여 적지 않은 欠缺을 지니게 되었다. 즉 各種目錄이나 帳簿가 一部 남아 있기는 하나 圖書目錄으로서의 機能은 이미 喪失된지 오래이다. 따라서 藏書點檢을 施行하기 위하여는 于先 그 基本이 될 圖書에 關한 記錄의 補完이 火急히 要請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58 年부터 이 舊刊圖書의 目錄整備에 着手하였으나 本館의 財政形便上 이를 專擔할 職員을 配置 못하고 平常事務時間中 寸暇를 利用하여 綿綿히 努力한 結果 1964 年末까지 7 個年間に 겨우 一般西洋書 10 餘萬冊에 대한 圖書記錄(특히 書架目錄)의 大綱을 맞추게 되었고 이를 基準으로 하여 舊刊西洋書點檢을 施行한 바 있으며 이제 그 藏書點檢結果를 調査中에 있

다. 이 藏書點檢後 結果調査가 끝나면 本館의 舊刊西洋書藏書目錄을 出版할 計劃을 構想하고 있다.

한 便 나머지 東洋書 約 30 萬冊에 대한 圖書의 記錄을 補完하기 위하여 年次計劃으로 이의 整備事業을 推進하고 있다.

第 1 次年度인 今年度の 事業進度는 10 月末現在 82%에 達하고 있다.

이와 같은 速度로 이 舊刊東洋書目錄整備事業을 繼續 推進한다면 앞으로 3 年 내지 3 年半後에는 이들 舊刊東洋書의 實態도 完全히 把握되고 나아가 本館의 舊刊東洋書藏書目錄이 出版될 것이고 新刊東西洋書의 藏書目錄과 합쳐 서울大學校圖書館 綜合目錄을 編纂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計劃이 順調롭게 早速히 具現되면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綜合目錄, 나아가서는 韓國圖書의 綜合目錄의 編纂에 寄與하는 바 크다고 본다.

(閱覽課 提供)

○ 古 典 影 印 事 業

本館에는 奎章閣圖書를 비롯한 많은 貴重圖書가 收藏되어 있다. 그러나 이 貴重圖書에 대하여는 自古로 利用보다 오히려 保存에 重點을 두어온 탓으로 그 閱覽에 있어서 많은 制限을 두게 되었고 이를 死藏시킨다는 念慮도 없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들 貴重資料를 國內外로 널리 紹介하는 同時에 原本保存의 萬全을 期하기 위하여 日政時代에 이미 朝鮮史編修會 등에서 이의 影印을 始作하였으며 1937 年부터 1944 年까지 8 年間に 걸쳐 舊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에서 奎章閣叢書로서 第 9 輯까지 影印本을 出版한 일이 있다(第 10 輯發刊與否는 未詳).

그리고 1945 年 以後에는 國史編纂委員會를 비롯하여 國立圖書館, 延世大學校, 成均館大學校, 東國大學校 등에서 本館의 藏書를 底本으로 하여 이의 影印本을 刊行한 바 적지 않다.

그 동안 本館에서도 이들 貴重文獻의 影印事業을 屢次 構想하고 計劃한 바 있으나 與件의 不備로 이를 推進치 못하고 다만 他機關에 의한 이 影印事業에 대하여 그 底本을 提供하고 傍觀할 수 밖에 없었던 기막힌 形便에

處하여 慨嘆한 바 적지 않다.

이제 늦게나마 서울大學校에서도 自力으로써 이들 貴重資料의 影印事業을 推進하게 되어 스스로 흐뭇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 影印事業을 推進하기 위하여 本校에 서울大學校古典刊行會를 設置하게 되었으며 影印對象圖書의 選定 및 影印本の 編輯, 印刷 및 發行等 業務를 서울大學校出版부와 提携하여 本館에서 이를 擔當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6 年에 맞이하게 될 本校開校 20 周年記念日(10 月 15 日)까지는 적어도 20 輯의 影印本을 刊行할 計劃이며 于先 第 1 次計劃으로 靑莊館全書, 蒙語老乞大, 蒙語類解, 捷解蒙語, 樂學軌範, 國朝樂章, 潭庭遺稿 林園十六志(一名 林園經濟志), 舊韓末 外交關係記錄 等等을 10 個輯으로 影印, 出版할 計劃으로 있으며 그 第 1 輯 靑莊館全書 上卷부터 發行될 것이다.

이와 같은 뜻있고 有益한 本校의 貴重資料影印事業을 育成하고 發展시킴에 있어 關係當局과 學界의 積極的인 聲援이 渴望되는 바이다.

(閱覽課 提供)

○ 學術論文索引 編纂事業

이미 本館報 제 1 卷 제 1 호에서 紹介한바와 같이 本館 事業中の 하나로 論文集의 索引을 들 수가 있다.

本館에 所藏되어 있는 韓國, 中國 및 日本語로된 大學 論文集, 個人論文集 및 各種 記念 論文集 中에서 學術論文의 著者記入 索引카드를 1964 年度에 4224 枚를 作成 完了하였고. 1965 年 1 月부터 10 月末日까지 6,257 枚를 作成 合計 10,481 枚를 作成完了하였다.

이들 作成된 索引카드를 第 1 次的으로 D.C. 15 版에 依據 目까지 區分하여 分類別 主題順으로 配列하고 있으며. 2 次的으로는 目區分에서 量이 많은 主題에 限하여 다시 細目區分할 豫定으로 있다. 1965 年 10 月末日 現在로 目區分이 끝난것이 5,168 枚이며 나머지 카드도 今年 末日까지는 目區分이라도 끝낼 豫定이다.

이의 編成이 끝나면 곧 이를 印刷 出版할 計劃으로 있다.

(閱覽課 提供)